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정지훈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he utilization of the Joseon royal family's Asi-acupoint therapy in the 『Seungjeongwon Ilgi』

Jung Ji-Hun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rough articles published in the 『Seungjeongwon Ilgi』,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by analyzing how the Joseon royal family used Asi-acupoint therapy.

Various Asi-acupoints were used in the Joseon royal family to treat diseases; King Sukjong was the king who was treated the most with Asi-acupoint therapy, followed by King Yeongjo, King Hyeonjong, King Hyojong and King Injo.

The body parts with the most Asi-acupoint therapy are lower extremities, followed by interbody, upper extremities, other parts, and head. Asi-acupoint therapy was treated evenly throughout the body.

The most common disease using Asi-acupoint therapy is pain, followed by abscesses, other symptom, internal damage, and external infections.

When Asi-acupoint was executed, the ratio of acupuncture and moxiubustion was 65:35, indicating that acupuncture was somewhat frequently used.

Key words: 『Seungjeongwon Ilgi』, Asi-acupoint therapy, Medicine of the Joseon royal family

I. 서론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조선 왕실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그 중에서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보다 상대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의 일상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여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본다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의 기록은 훌륭한 의안(醫案)이 되기도 하기에 왕실의 의학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왕실 기록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던 『승정원일기』가 웹상에 공개되면서 왕실 의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승정원일기』를 통해 드러난 왕의 진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의 단편적인 기록들이 주었던 아쉬움을 해소해 주었다.¹⁾ 『승정원일기』를 통한 연구는 이후 많은 왕들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임상의학의 대강에 대한 연구²⁾를 시작으로, 인조³⁾, 효종⁴⁾, 현종⁵⁾, 숙종⁶⁾, 경종⁷⁾, 정조⁸⁾ 등의 진료 및 치병(治病) 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렬왕후⁹⁾, 인

접수 ▶ 2021년 05월 10일 수정 ▶ 2021년 05월 10일 채택 ▶ 2021년 05월 20일
교신저자 ▶ 정지훈,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33-730-0671 E-mail : albino24@sangji.ac.kr

- 1) 김동윤, 고대원, 김현경, 차웅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1-137.
- 2)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3)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4)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5)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6)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7) 김동윤.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8) 김동률, 정지훈.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85-102.

현왕후¹⁰), 헌경왕후(혜경궁 홍씨)¹¹) 등의 치병 기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상기의 연구들은 왕실구성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한의학의 양대 치료 수단인 탕약과 침구 중에서, 특히 침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침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숙종의 수구(受灸)를 중심으로 한 연구¹²)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아시혈(阿是穴)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시혈은 눌러서 아픈 곳이나 혹은 기타 병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혈자리로 정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언급은 『천금요방(千金要方)』에 나오는데, “오(吳)와 촉(蜀)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뜸법 중에 아시혈(阿是穴)의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병을 앓아 통증이 있을 때 곧 그 부위를 눌러 주어 속이 그 해당하는 자리이면 혈자리이든 아니든 곧바로 편해지거나, 혹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고 곧 아시(阿是; 아! 맞다)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뜸을 떠 주면 대체로 효과가 있으므로 아시혈이라고 한다.¹³⁾”라고 하였다.

여러 임금 및 왕실 구성원들이 얼마나, 또 왜 아시혈요법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 보았다.

1. 아시혈의 각 임금별 노출 횟수

『승정원일기』에서 ‘아시’ 혹은 ‘아시혈’이라는 검색어를 넣어 검색한 결과 모두 159건의 기사(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1. 승정원일기 阿是穴 검색결과

임금	치료대상	기사수	계
인조	자전	1	5
	왕세자	1	
	인조	3	
효종	副勅使	3	6
	西正使	2	
	효종	1	
현종	大王大妃	2	13
	현종	11	
숙종	大王大妃	4	95
	中宮殿(인현왕후)	56	
	中宮殿(인원왕후)	3	
영조	숙종	32	40
	동궁	2	
	大王大妃	6	
	영조	32	

II. 본론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선왕실에서의 아시혈요법을 활용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하여 『승정원일기』 사이트¹⁴)를 활용하였다. 『승정원일기』 사이트에서 ‘阿是’ 혹은 ‘阿是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모두 161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중 2개의 기사는 ‘아시’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¹⁵⁾, 그 나머지의 기사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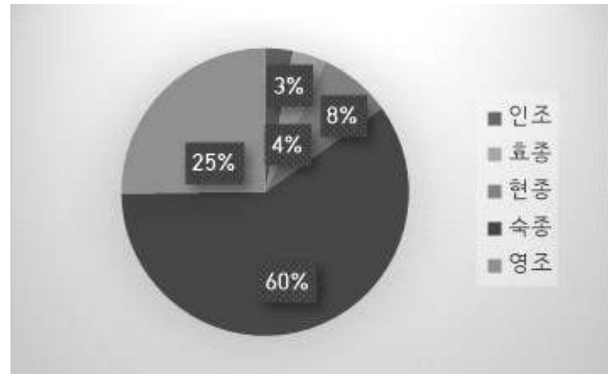


그림 1. 승정원일기 阿是穴 검색 결과

9)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0)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11) 곽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2) 김동윤, 고대원, 김현경, 차용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2.
 1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卷二十九 鍼灸上. 서울:대성의학사. 1989:519. “故吳蜀多行灸法, 有阿是之法, 言人有病痛, 卽令捏其上, 若裏當其處, 不問孔穴, 卽得便快成(或)痛處, 卽云阿是, 灸刺皆驗, 故曰阿是穴.”
 14)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do> (2020.10.31.)
 15)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3월 27일 경신, 『승정원일기』 철종 9년 10월 9일 신해.
 16) 하루에도 몇 개의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치료가 되지 않은 기사도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특정상 각 기사에 언급되는 것을 한 번의 횟수로 삼았다.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어 조선왕조 모든 임금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인조가 임금이 된 1623년부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일제에 의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1910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왕은 5명에 불과하다.¹⁷⁾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혈의 기사가 가장 많은 임금은 숙종이며 그 다음으로 영조, 현종, 효종 인조 등의 순이며, 아시혈과 관련된 기사가 없는 임금도 있었다. 숙종의 경우 大王大妃 4회¹⁸⁾, 中宮殿(인현왕후) 56회¹⁹⁾, 中宮殿(인원왕후) 3회²⁰⁾, 숙종 본인 32회²¹⁾ 등으로 모두 95회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숙종 때의 기록이 많은 이유는 숙종의 재위기간이 46년으로 길기도 했지만, 특히 숙종의 왕비인 인현왕후의 질병을 치료함에 아시혈을 많이 사용한 데서 기인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은 영조인데, 영조의 경우 동궁 2회²²⁾, 大王大妃 6회²³⁾, 영조 본인 32회²⁴⁾ 등으로 모두 40회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영조 또한 재위기간이 52년이나 될만큼 길었던 왕으로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총 40건의 기사 중 80%가 영조 자신을 치료한 기사이다. 그 다음은 현종인데, 현종의 경우 大王大妃 2회²⁵⁾, 현종 본인 11회²⁶⁾ 등으로 모두 13회의 아시혈요법의 언급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효종인데, 효종의 경우 副勅使 3회²⁷⁾, 西正使 2회²⁸⁾, 효종 본인 1회²⁹⁾ 등으로 모두 6회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 다음은 인조인데, 인조의 경우 자전 1회³⁰⁾, 왕세자 1회³¹⁾, 인조 본인 3회³²⁾ 등으로 모두 5회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2. 아시혈의 시술 부위

『승정원일기』에서 아시혈요법이 시술된 기사에서, 혈이 있는 위치를 인체의 부위별로 두부(頭部), 체간(體幹), 상지(上肢), 하지(下肢)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 표와 같이 그 횟수와 비율이 나타난다.

표 2. 아시혈요법이 시술된 부위

부위	혈위명칭	횟수	비율
두부	頭部	8	5%
체간	胸腹間, 右脅下, 丹中上下, 巨闕上, 腹部, 中脘	48	25%
상지	肩, 左邊肩部, 手部, 肩顛後, 上臂部	22	14%
하지	足部, 膝部, 左右膝上, 脚部痛處, 環跳穴近處, 脚部筋脈跳動處, 右邊脚部痛苦處, 脚部外邊環跳下, 左邊委中傍, 脚部牽引處	77	50%
기타	外腎附近, 長強穴右邊近處	9	6%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혈요법이 가장 많이 시술된 신체 부위는 하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체간, 상지, 기타, 두부 등의 순이다. 신체의 전 부분에 골고루 아시혈요법이 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아시혈요법이 시술된 부위인 하지는 足部³³⁾, 膝部³⁴⁾, 左右膝上³⁵⁾, 脚部痛處³⁶⁾, 環跳穴近處³⁷⁾, 脚部筋脈跳動處³⁸⁾, 右邊脚部痛苦處³⁹⁾, 左邊委中傍⁴⁰⁾, 脚部牽引處⁴¹⁾ 등으로 아시혈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때로는 자세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혈의 위

17) 『조선왕조실록』에서 ‘阿是’를 검색하여 보니, 선조 때만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성격이 다를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4월 26일 무진 외 3회.
19)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6월 12일 무신 외 55회.
20)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6월 10일 기유 외 2회.
21) 『승정원일기』 숙종 1년 3월 12일 경오 외 31회.
22)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1월 12일 무오 외 1회.
23)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9월 21일 경오 외 5회.
24) 『승정원일기』 영조 5년 6월 11일 갑신 외 31회.
25)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4월 6일 경자 외 1회.
26)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12월 23일 갑자 외 10회.
27)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1월 12일 갑진 외 2회.
28) 『승정원일기』 효종 5년 7월 23일 경술 외 1회.
29) 『승정원일기』 효종 9년 8월 1일 병인.
30)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5일 신묘.
31)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5월 8일 계축.
32)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0월 14일 정유 외 2회.
33)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5월 8일 계축 외 4회.
34)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7월 1일 무진 외 4회.
35) 『승정원일기』 숙종 1년 3월 12일 경오.
36)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5일 무진 외 8회.
37)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14일 정축 외 11회.
38)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20일 계미 외 1회.

치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하지에 많은 아시혈요법을 사용한 것은 이 또한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숙종의 비인 인현왕후의 종양의 발병부위가 하지 특히 대퇴 쪽에 다발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5일 무진’부터 ‘숙종 27년 5월 10일 병신’ 사이에 집중적으로 인현왕후에 대한 아시혈요법을 통한 치료기록이 검색된다. 이는 인현왕후의 사인을 밝힌 논문에서 “왕비로 복위되어 다시 입궐한 지 7년 후인 숙종 27년 8월 14일에 인현왕후는 그만 사망하고 만다. 발병이 최초로 보고된 시점이 숙종 26년 3월 26일이므로 사망하기까지 1년 6개월을 병고에 시달린 것이다.”⁴²⁾라고 서술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두 번째로 많이 아시혈요법이 시술된 부위는 체간인데, 체간은 胸腹間⁴³⁾, 右脅下⁴⁴⁾, 丹中上下⁴⁵⁾, 巨闕上⁴⁶⁾, 腹部⁴⁷⁾, 中脘⁴⁸⁾ 등으로 아시혈의 위치를 서술하고 있다. 이 또한 때로는 자세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혈의 위치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숙종은 평소 복부에 땀을 뜨는 것을 좋아하여 중완의 뜸뜨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행하였으며⁴⁹⁾, 복부의 아시혈 외에도 鳩尾穴, 중완혈 등에 뜸을 뜨기도 하였다.⁵⁰⁾ 세 번째로 많은 부위는 상지로, 상지는 肩⁵¹⁾, 左邊肩部⁵²⁾, 手部⁵³⁾, 肩頰後⁵⁴⁾, 上臂部⁵⁵⁾ 등으로 아시혈의 위치를 서술하고 있다. 네 번째로 많은 부위는 기타인데, 外腎附近⁵⁶⁾, 長強穴右邊近處⁵⁷⁾ 등의 아시혈의 위치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숙종의 장강혈 부위의 상처는 꽤 오랜 기간 치료가 되는데, 촉상처(觸傷處)라고만 하고 왜 상처가 생겼는지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⁵⁸⁾ 마지막은 두부인데 두부의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고, 혈위에 대한 묘사 또

한 頭部⁵⁹⁾로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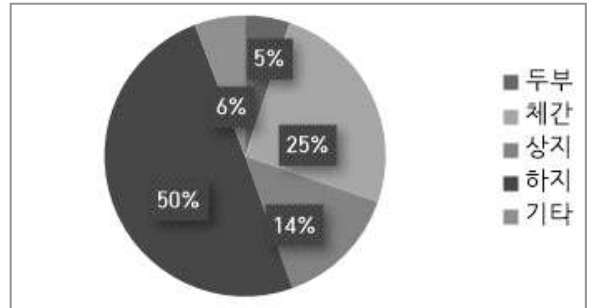


그림 2. 아시혈요법이 시술된 부위

3. 아시혈요법으로 치료한 병증

아시혈을 활용하여 치료한 병증들을 외감, 내상, 동통, 용저,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아시혈요법으로 치료한 병증

병증	질환	횟수	비율
외감	頭痛, 觸感暑風	4	3%
동통	腰痛, 足部痛, 胸脅之痛, 肩臂痛, 膝部酸疼, 手部酸疼, 脚部酸疼, 腰脚部痛, 臂部至於挫閃	70	45%
내상	疝氣滯症, 腹漲便秘, 痰響, 腹部刺痛, 丹中上下牽引作痛, 上膈間牽痛	11	7%
용저	灸瘡作孽, 環跳穴痛苦, 右脅下疼痛, 脚部委中穴近處酸痛, 脚部筋脈跳動牽痛, 胸膈間氣逆作痛, 腰脊下甚痛, 上自腋下 下至環跳 浮氣酸痛	53	34%
기타	觸傷處, 舌本所出, 頭部眼部諸症, 四末厥冷, 頭暈	17	11%

39)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5월 10일 임인.

40)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8월 27일 기축.

41)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11월 13일 계묘.

42)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은문집, 2012;18(1):1.

43)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1월 13일 을사 외 1회.

44)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6월 21일 임오 외 7회.

45)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26일 기해.

46)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6월 28일 갑인.

47)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1월 12일 무오 외 5회.

48)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3월 17일 기사.

49) 김동윤, 고대원, 김현경, 차웅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35.

50)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26일 기해.

51) 『승정원일기』 효종 5년 7월 23일 경술 외 1회.

52)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12월 23일 갑자 외 5회.

53)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1월 16일 신사 외 3회.

54)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5월 17일 기해.

55)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2월 20일 신유 외 12회.

56)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10월 15일 임자.

57)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7월 13(12)일 무자[무오] 외 7회.

58)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7월 13(12)일 무자[무오] ~ 숙종 39년 7월 30(24)일 을해.

59)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9월 21일 계미 외 4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혈요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 병증은 동통질환이다. 이는 현재의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한의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통질환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腰痛⁶⁰⁾, 足部痛⁶¹⁾, 胸脅之痛⁶²⁾, 肩臂痛⁶³⁾, 膝部酸疼⁶⁴⁾, 手部酸疼⁶⁵⁾, 脚部酸疼⁶⁶⁾, 腰脚部痛⁶⁷⁾, 臂部至於挫閃⁶⁸⁾ 등으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는 옹저 질환으로 灸瘡作孽⁶⁹⁾, 環跳穴痛苦⁷⁰⁾, 右脊下疼痛⁷¹⁾, 脚部委中穴近處酸痛⁷²⁾, 脚部筋脈跳動牽痛⁷³⁾, 胸膈間氣逆作痛⁷⁴⁾, 腰脊下甚痛⁷⁵⁾, 上自腋下 下至環跳 浮氣酸痛⁷⁶⁾ 등으로 표현되었다. 옹저질환이 많은 이유는 인현왕후의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시혈을 활용하였기 때문인데, 『승정원일기』에서는 종기부분의 통증을 일반적인 동통과 구분하지 않고 묘사한 부분도 많아 구분하기 힘든데, 상기 인현왕후의 사망원인을 밝힌 기발표논문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이러한 인현왕후의 병은 옹저 중에서도 환도저(環跳疽)라고 볼 수 있다.”⁷⁷⁾ 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인현왕후에게 시술된 아시혈 요법은 특정 기사⁷⁸⁾를 제외하고 대부분 옹저를 치료한 범주에 넣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기타 질환으로 觸傷處⁷⁹⁾, 舌本所出⁸⁰⁾,

頭部眼部諸症⁸¹⁾, 四末厥冷⁸²⁾, 頭暈⁸³⁾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숙종의 장강혈(長強穴) 부위의 상처는 꽤 오랜 기간 치료가 되는데, 촉상처(觸傷處)라고만 하고 왜 상처가 생겼는지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⁸⁴⁾ 네 번째는 내상질환으로 내상질환은 疝氣滯症⁸⁵⁾, 腹漲便秘⁸⁶⁾, 痰響⁸⁷⁾, 腹部刺痛⁸⁸⁾, 丹中上下牽引作痛⁸⁹⁾, 上膈間牽痛⁹⁰⁾ 등이다. 마지막은 외감질환인데, 외감질환은 頭痛⁹¹⁾, 觸感暑風⁹²⁾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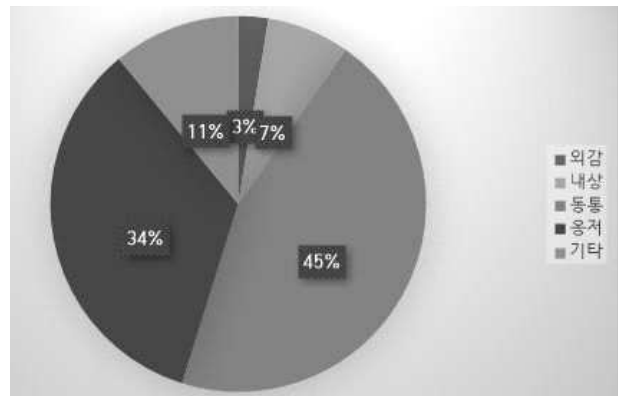


그림 3. 아시혈로 치료한 병증의 비율

- 60)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6월 7일 을사 외 3회.
- 61)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5월 8일 계축 외 2회.
- 62)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1월 12일 갑진 외 2회.
- 63) 『승정원일기』 효종 5년 7월 23일 경술 외 7회.
- 64)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7월 1일 무진 외 3회.
- 65)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1월 16일 신사 외 1회.
- 66)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4월 6일 경자 외 3회.
- 67)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5월 6일 정축 외 2회.
- 68)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4월 18일 병자 외 6회.
- 69)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2월 9일 계묘 외 1회.
- 70)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13일 병자 외 1회.
- 71)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6월 21일 임오 외 7회.
- 72)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8월 16일 병자 외 1회.
- 73)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20일 계미 외 1회.
- 74)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9월 5일 갑오.
- 75)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5월 11일 계묘.
- 76)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11월 22일 경술.
- 77)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 2012;18(1):9.
- 78)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6월 6일 정묘. 인현왕후의 頭痛 치료 기사.
- 79)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7월 13(12)일 무자[무오] 외 7회.
- 80)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9월 21일 계미 외 1회.
- 81)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28일 을묘 외 1회.
- 82)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13일 병술.
- 83)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6월 10일 병진.
- 84)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7월 13(12)일 무자[무오] ~ 숙종 39년 7월 30(24)일 을해.
- 85)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3월 17일 기사.
- 86)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9월 21일 경오.
- 87)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1월 12일 무오 외 1회.
- 88)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5월 26일 임술.
- 89)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26일 기해.
- 90)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9월 5일 갑오 외 2회.
- 91)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4월 26일 무진 외 1회.
- 92)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7월 15일 갑신.

4. 아시혈의 침과 뜸의 비율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선왕실의 아시혈요법에는 침과 뜸이 모두 시술되었는데, 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침과 뜸의 시술 비율

구분	횟수	비율
침	96	63%
뜸	53	35%
침뜸 병행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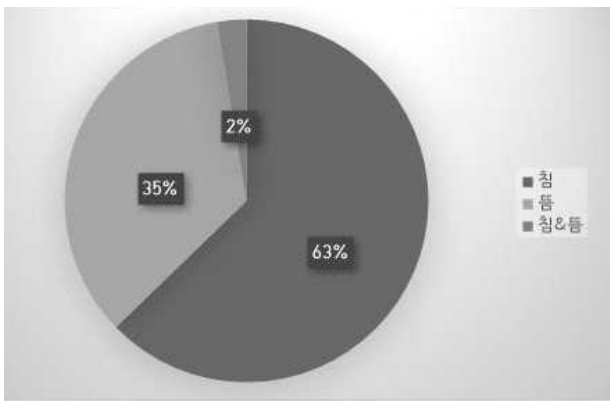


그림 4. 침과 뜸의 시술 비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을 놓은 횟수는 96회, 뜸을 뜬 횟수는 53회, 침과 뜸을 동시에 뜬 횟수는 4회이다.⁹³⁾ 아시혈요법의 유래는 뜸을 뜨는 것부터 비롯하였기에,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선왕실에서의 침과 뜸 시술 비율은 침시술의 많은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현왕후의 응저를 치료함에 있어 눈을 배출하기 위한 할개(割開)⁹⁴⁾ 등도 침술의 범주에 넣어 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침시술이 뜸시술보다 많은 것은 주목할만 하다.

침을 놓을 때 사용한 아시혈의 가지 수와 침의 개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적게는 한두곳부터 많게는 대여섯 곳까지 시술을 하였으며, 여러 개의 침을 흘어 시술하는 산침(散鍼)⁹⁵⁾의 방법도 사용하였다. 뜸을 뜬 때 사용한 아시혈의

가지 수와 뜸의 장수 또한 다양하다. 적게는 석장[三壯]부터 많게는 스물한장[三七壯]까지 다양한 장수의 시술을 하였다. 뜸을 뜬 것을 계획하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일기에 따르는 금기를 지켰는데, 날씨가 덥거나[日熱], 삭일(朔日), 일식(日食) 등의 이유로 뜸 시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⁹⁶⁾ 이와 같은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침구택일법은 忌日과吉日로 나눌 수 있다. 忌日은 다시 날짜, 달의 모양, 節氣, 人神, 建除十二神, 癘瘧日을 기준으로 활용되었다.⁹⁷⁾

5. 『승정원일기』의 아시혈에 관한 내용 고찰을 통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

1) 정경혈과 아시혈의 효과에 대한 논쟁.

침구치료의 효과와 관련하여 정경혈의 활용과 아시혈의 활용은 늘 많은 논의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관마다 각각의 의견을 내어놓았다.⁹⁸⁾ 아시혈은 구급이나 부기(浮氣) 등의 증상에 유효하고, 정경혈은 부기뿐만 아니라 슬비(膝痺) 등의 증상에도 모두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2) 뜸을 뜨는 재료로 쑥 이외의 약재를 사용

뜸을 뜬 때의 보료는 일반적으로 쑥을 사용한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뜸의 보료로 쑥 이외의 약재를 사용한 기사가 몇몇이 있는데, 특히, 영조 때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된다. 영조는 여러 의관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륙(商陸)을 뜸의 보료로 활용하는 것을 고집하여 끝내 시술하게 만든다.⁹⁹⁾

3) 병증주위와 멀리 있는 아시혈의 활용

아시혈은 위낙에 병소 주위의 혈자리에 취혈을 하여 침자 혹은 뜸을 뜨는 곳인데, 정경침법의 원위 취혈의 방법처럼 병소와 멀리 떨어진 자리를 취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

93)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5월 17일 기해 외 3회. 숙종의 견우(肩輿)혈 통증을 “左邊臂部阿是穴, 受鍼敢達. 臂部阿是穴, 付缸灸, 敢達.” 엄격한 의미의 뜸을 뜬 것이 아니라 단지구[付缸灸]를 부착하여 치료한 것이다.

94)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6월 21일 임오 등.

95)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7월 17일 갑술

96)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7월 1일 무진 등.

97)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침구택일의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009; 22(1):24.

98)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6월 5일 을해. “診候畢, 願命使首醫稟定 …… 有鉉曰, 經絡則須三度受鍼後, 可以責 …… 聖微曰, 阿是穴受鍼, 蓋取救急 …… 大抵淨氣諸症, 皆出於濕熱之壅滯, 故自去冬, 已有經絡受鍼之議, 經絡數疏通, 則非但浮氣, 至於膝痺等症, 亦皆有效矣.”

9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2월 20일 신유

었다. 예를 들면, 두훈(頭暈)의 병증에 복부(腹部)의 아시혈을 취하여 치료한 경우이다.¹⁰⁰⁾

정도로 침술을 다소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고찰

아시혈은 눌러서 아픈 곳이나 혹은 기타 병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혈자리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그 유래가 오래된 아시혈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았음을 『승정원일기』를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조선왕실에서 임금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아시혈요법의 병증, 치료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훌륭한 의안(醫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안은 임상기록으로서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아시혈요법에 대한 초보적이면서도 정량적(定量的)인 연구에 치우친 점이 있는 바, 이후에 좀 더 정성적(定性的)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III. 결론

『승정원일기』에 실린 기사를 분석하여 조선왕실에서는 아시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선왕실에서는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다양한 아시혈을 활용하였으며, 아시혈요법으로 치료한 기사가 가장 많은 임금은 숙종이고, 그 다음으로 영조, 현종, 효종 인조 등의 순이다. 이들 다섯 명의 임금 외에는 아시혈과 관련된 기사가 없는 임금도 있었다.
2. 아시혈요법을 가장 많이 시술한 신체의 부위는 하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체간, 상지, 기타 부위, 두부 등의 순이다. 신체의 전 부분에 골고루 아시혈요법이 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아시혈요법을 활용한 가장 많은 병증은 동통이고, 그 다음은 옹저, 기타 질환, 내상, 외감 등의 순이다. 다양한 병증에 아시혈요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아시혈요법을 시술할 때 침술과 구술의 비율은 63:3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1. 김동윤, 고대원, 김현경, 차용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1-137.
2.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3.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6.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7. 김동윤.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8. 김동률, 정지훈.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 85-102.
9.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0.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11. 곽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的

100)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6월 10일 병진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卷二十九 鍼灸上. 서울:대성의학사. 1989:519.
13.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2020.10.31.)
14.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2020.10.31.)
15.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침구택일의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009; 22(1):15-24.